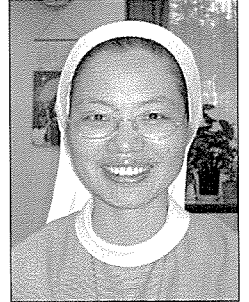


# 희망의 삶이 이어지는 호스피스 활동이 되었으면.....

일본 성마리아병원 연수기



민영순 수녀  
강남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

**기대** 감과 설레는 마음으로 성마리아병원 연수를 가는 우리 7명의 일행이 인천 국제공항에 모두 모여 출국심사를 마치고 후쿠오카를 향해 비상하는 아시아나 항공기를 탔다. 시야에서 멀어지는 건물들의 모습, 비행기 안에서 바라보는 자연경관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얼굴 느낄 수 있어 감사드렸다. “이 좋은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음에 담아야 하고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며 주어진 시간을 풍요로운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길 기도드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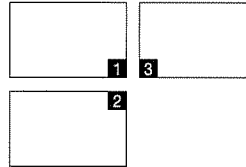
어느 사이 착륙한다는 기내방송이 나왔다.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나오니 우리의 연수 여정에 통역을 맡아 주실 이케다(池田) 선생님과 국제협력부에 있는 토도(藤堂)상이 우리를 반기고 있어 인사를 나누었다.

1시간 정도 후에, 작은 의원으로부터 시작하여 1000병상이 넘는 오늘까지 가톨릭의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과 의료, 복지,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는 성마리아병원에 도착하였다. 대단한 규모였다. 신앙인인 한 의사를 통하여 펼치신 하느님의 놀라우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날부터 연수가 시작되었다. 연수를 시작하는 당일 아침, 마음을 훈훈하게 한 것은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라고 인사하는 밝은 표정들이었다.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마음을 밝게 해주었다.

## 호스피스활동

여러 날의 연수 중, 하루를 실습하게 되는 호스피스병동에 나는 큰 기대감을 갖고 빨리 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무엇보다 호스피스병동에 근무하고 있기에 여러 부서 중에서도 더 많이 잘 보고 와야 한다는 의무감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1. 성마리아병원 호스피스병동 간호사들과의 송별식 장면.
2. 성마리아병원 가정간호사 진료봉사 활동 장면.
3. 병원내에 상설된 온천목욕탕(일본 환자들은 주1~2회 정도 탕욕을 한다).

호스피스란 말기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맞이하도록, 환자와 그 가족을 신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도우며 사별 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돌보는 곳이다.

우리나라는 1965년, 강릉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녀들에 의해 강릉 갈발리의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이 시작되어, 현재 80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강남성모병원은 1988년에 호스피스병동을 신설하였고, 현재는 16병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원목자, 자원봉사자, 약사, 영양사 등이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자 팀의 지지가 잘 되어 있어 대화와 기도로 환자와 가족을 지지해주고 사별한 경우에도 가족을 위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없어 시설, 규모, 또는 운영 면에서 기관들 간에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도 행정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인들의 참여가 미흡하여 말기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중 인식의 부족으로 임종에 가까운 사람이 가는 곳으로 인식하고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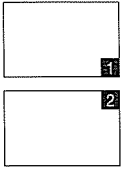
또한 의료진의 참여가 높아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호스피

스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2년 8월 정부에서 호스피스 법제화 추진에 대한 공식발표를 하였고 이후 2003년부터 2년간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호스피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일본을 방문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게 느껴졌다.

### 체계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일본은 1981년 성삼레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이 시작되어 우리나라보다 15년이나 늦게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건강보험 수가항목에 호스피스 수가가 신설되었고, 1998년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승인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서비스 대상자, 인력 기준 및 시설설치 기준 등이 규정되어 체계적으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성마리아병원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였다. 병상은 16병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이념에 따라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도 국가적 지원이 있어 경제적 부담은 적다고 한다.

요양병동 7층의 호스피스 병동안내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여는 순간, 아늑하고 편안하다는 인상과 함께 실내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잔잔한 평화가 흐르는 느낌이었다. 실내 복도



1. 연수과정 중 호스피스병동 간호사와 함께 기념촬영.
2. 연수생 및 성마리아병원 관계자 기념촬영.

에 깔려 있는 카페트의 촉감이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였고 넓은 공간이 모두가 16병상의 환자들만을 위한 공간이었기에 마음이 풍요로웠다. 간호사들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호스피스 팀은 전담의사, 간호사, 상담심리사, 개호복지사,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 종교의 역할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

신체간호에 관한 것은 모두 의료인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은 환경정리와 대화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 전체 병원 방침에 맞추어 보호자 없이 운영되고 있어 개호복지사가 일상생활을 돕고 있었다. 보호자는 환자 곁에 늘 함께 하지 않으며 자주 면회를 다녀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실정과는 또 다른 면이다. 우리나라는 남은 기간 동안 환자가 외롭지 않고 가족의 사랑을 함께 나눌 시간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보호자가 늘 함께 하도록 하며 환자 또한 누군가 늘 곁에 있어주기를 원한다.

한곳 한곳을 안내할 때마다 넉넉한 공간과 섬세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편히 쉴 수 있는 응접실이 있었고, 보호자와 환자가 마실 수 있는 차 종류와 와인이 있어 마시고 싶을 때 누구나 마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차와 와인은 기증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었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당이



있었다. 공간 면에서는 일반 병동에 비하면 넓은 공간이나 일본의 병실면적에서 1인당 차지하는 공간에 비하면 좁은 공간이기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다면 환자를 위하여 넓은 시설 공간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환경적으로 넓은 공간과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마리아병원 호스피스 병동은 나로 하여금 환자들을 위해 최상으로 해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열려있음을 알게 하였다. 연수를 마치며 일본의 호스피스에서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조금 더 종교적 역할이 확대되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희망의 삶이 이어짐' 이라고 고백하는 분이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다.

많은 말기 환자들이 적당한 시기에 호스피스 활동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남은 생애를 아름답고, 보람되게 마무리하고 희망의 새날을 향하여 소중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친절하고 따뜻하게 환자를 돌보는 일본의 의료인들을 만나보고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돌봄에 사랑과 정성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었다.

좋은 체험 기회를 주신 주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